

- 본문 : 창세기 32장 24~32절
- 제목 :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는 하나님”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찢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를 분명히 믿기는 하는데 곤란할 때, 위험할 때, 이권이 생길 때는 살짝 거짓말을 하는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내가 신자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 내야 직성이 풀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으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모난 기질을 갖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붙들려고 할 때마다 도망치고, 하나님께서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실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영적으로 모난 기질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난 인생의 여러 부분을 다듬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듬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 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는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아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24절)
2. 갑자기 야곱에게 덤벼들어 심한 몸싸움 수준의 씨름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4절, 30절 참조)
3.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과 상대하신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해야 하셨습니까? (27절, 28절)
4. 하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진 모난 기질을 꺾으시고자 야곱과 싸움에 가까운 씨름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든 것을 인생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다리를 절면 눈이 좋아집니다. 무언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인생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튼튼한 다리로 눈 감고 마구 내달리기보다는 차라리 다리를 약간 절더라도 눈 똑바로 뜨고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당신의 생각도 그러합니까?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씨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어려운 씨름이지 않습니까?

· 말씀기도제목

1. 사람들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웠던 나 중심적인 모난 기질을 꺾으시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달리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2.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바꾸실 때 ‘나의 자아가 다스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전환하는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하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붙들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 내는 생명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